

Deuteronomy Ch. 11

Verse 26

“See,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a blessing and a curse.”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PaRDeS

Peshat: Moshe presents Yisrael with a covenant choice. As they prepare to enter the Promised Land, YHWH places before them two possible outcomes—blessing through obedience or curse through disobedience.

Remez: The command “See” (רָא, *re'eh*) suggests more than physical sight. It calls Yisrael to perceive spiritually, discerning YHWH's ways before making life's decisions.

Drash: Every day humanity stands before the same covenant choice. Blessing and curse are not arbitrary rewards or punishments but the natural consequences of either walking with YHWH or departing from Him.

Sod: The two paths reflect two spiritual realities. Every choice either aligns the soul with the life flowing from YHWH or separates it from His sustaining presence. The covenant is renewed in every faithful decision.

Energetic Flow

YHWH reveals His covenant → Yisrael is called to see clearly → A conscious choice is made → Blessing or curse follows → The covenant relationship is strengthened or weakened.

Meaning

This verse reminds us that covenant life is never passive. YHWH does not force obedience but places His instruction before His people, inviting them to choose the path that leads to life. Every decision becomes an opportunity to reaffirm trust in His covenant.

PaRDeS

페샤트: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언약의 선택을 제시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야훼께서는 순종을 통한 복과 불순종을 통한 저주라는 두 결과를 그들 앞에 두신다.

레메즈: **“보라”(רָא, *re'eh*)**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삶의 선택을 하기 전에 야훼의 길을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부르심이다.

드라쉬: 모든 사람은 날마다 동일한 언약의 선택 앞에 선다. 복과 저주는 임의적인 상벌이 아니라 야훼와 함께 걷는 삶과 그분을 떠나는 삶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소드: 두 길은 두 영적 현실을 나타낸다. 모든 선택은 영혼을 야훼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일치시키거나 그분의 생명을 떠나게 한다. 신실한 모든 선택 속에서 언약은 새롭게 된다.

에너지의 흐름

야훼께서 언약을 드러내심 → 이스라엘이 분명히 보도록 부르심 → 의식적인 선택 → 복 또는 저주가 따름 → 언약 관계가 강해지거나 약해짐.

의미

이 구절은 언약의 삶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음을 가르친다. 야훼께서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르침을 백성 앞에 두시며 생명에 이르는

Meaning

의미

길을 선택하도록 초청하신다. 모든 선택은 그분의 언약을 다시 신뢰하는 기회가 된다.

Mussar

무사르

Pause before important decisions and ask, "**Does this lead me closer to YHWH or farther from Him?**" A life of blessing is built not by one dramatic choice but by countless daily decisions to walk in His ways.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선택이 나를 야훼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 복된 삶은 한 번의 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길을 걷기로 하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로 세워진다.

Verse 27

“The blessing, when you obey the commands of YHWH your Elohim which I command you today.”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엘로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PaRDeS

PaRDeS

Peshat: The blessing comes through hearing and obeying YHWH's commandments. Covenant blessing is directly connected to faithful obedience.

페샤트: 복은 야훼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언약의 복은 신실한 순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Remez: The Hebrew word **שמע (shama)**, "to hear," carries the idea of listening with the intention to obey. True hearing always produces action.

레메즈: 히브리어 **שמע (shama)**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들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Drash: Blessing is not earned by human merit but experienced by remaining within the order that YHWH established. Obedience keeps His people within the stream of covenant life.

드라쉬: 복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머물 때 누리는 것이다. 순종은 백성을 언약의 생명 안에 머물게 한다.

Sod: Every act of obedience aligns the soul with the will of Heaven. As earthly obedience reflects heavenly order, divine blessing flows naturally into one's life.

소드: 모든 순종은 영혼을 하늘의 뜻과 일치시킨다. 땅의 순종이 하늘의 질서를 반영할 때 엘로힘의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Energetic Flow

Hearing YHWH's voice → Faithful obedience → Covenant alignment → Divine blessing → Greater devotion to YHWH.

Meaning

Scripture consistently teaches that blessing follows obedience because obedience keeps Elohim's people close to Him. The blessing is not merely material prosperity but the privilege of living under His gracious rule and experiencing His presence.

Mussar

Practice listening before acting. Let every decision begin by asking, "**What has YHWH already instructed?**" Obedience is the doorway through which His blessing is experienced daily.

에너지의 흐름

야훼의 음성을 들음 → 신실한 순종 → 언약과의 일치 → 엘로힘의 복 → 더욱 깊은 야훼께 대한 헌신.

의미

성경은 순종이 백성을 엘로힘 가까이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복이 따른다고 일관되게 가르친다. 복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며 임재를 누리는 특권이다.

무사르

행동하기 전에 먼저 듣는 훈련을 하라. 모든 결정을 시작할 때 *****야훼께서는 이미 무엇을 명하셨는가?*****를 물어보라. 순종은 엘로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문이다.

Verse 28

"And the curse, if you do not obey the commands of YHWH your Elohim, but turn aside from the way which I command you today, to go after other mighty ones which you have not known."

PaRDeS

Peshat: The curse results from rejecting YHWH's commandments and turning toward foreign idols. Idolatry is presented as abandoning the covenant relationship.

Remez: The phrase **"turn aside from the way"** suggests that spiritual decline usually begins with small deviations before leading to complete departure from YHWH.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엘로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길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PaRDeS

페샤트: 저주는 야훼의 계명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따를 때 찾아온다. 우상숭배는 언약 관계를 버리는 행위로 제시된다.

레메즈: *****길을 떠난다*****는 표현은 영적 타락이 대개 작은 벗어남에서 시작되어 결국 야훼를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이어짐을 암시한다.

PaRDeS

Drash: Idolatry is not limited to carved images.

Anything that replaces trust, love, or loyalty to YHWH becomes a false Elohim.

Sod: Turning from YHWH separates a person from the Source of life. The curse is the spiritual consequence of disconnecting oneself from divine life and light.

Energetic Flow

Ignoring YHWH's word → Turning from His path → Following false Elohim → Separation from covenant life → Curse and spiritual decline.

Meaning

The warning is not merely about punishment but about direction. Every choice either keeps us on YHWH's path or leads us away from Him. The farther we wander from His instruction, the farther we move from the life He desires for us.

Mussar

Examine your heart regularly for subtle idols—success, comfort, wealth, reputation, or self-sufficiency. Remove whatever competes with your devotion to YHWH, and return quickly whenever you begin to drift.

PaRDeS

드라쉬: 우상숭배는 조각된 형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야훼를 향한 신뢰와 사랑과 충성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소드: 야훼를 떠나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다. 저주는 엘로힘의 생명과 빛으로부터 단절될 때 나타나는 영적 결과이다.

에너지의 흐름

야훼의 말씀을 무시함 → 그분의 길에서 벗어남 → 거짓 신들을 따름 → 언약의 생명에서 분리됨 → 저주와 영적 쇠퇴.

의미

이 경고는 단순히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모든 선택은 우리를 야훼의 길에 머물게 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멀어질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에서도 멀어진다.

무사르

성공, 안락함, 재물, 명예, 자기 의존과 같은 미묘한 우상들이 없는지 마음을 자주 살펴보라. 야훼를 향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즉시 돌아오라.

Verse 29

“And it shall be, when YHWH your Elohim has brought you into the land which you go to possess, that you shall put the blessing on Mount Gerizim and the curse on Mount Ebal.”

“네 엘로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PaRDeS

Peshat: After entering the Promised Land, Yisrael was to publicly proclaim the covenant blessings from Mount Gerizim and the covenant curses from Mount Ebal. This ceremony reaffirmed the covenant before the entire nation (fulfilled in Joshua 8:30–35).

Remez: The two mountains standing opposite one another symbolize that every generation continually stands between blessing and curse, life and death, obedience and rebellion.

Drash: Gerizim and Ebal stood within the same covenant land. Even after receiving Elohim's promises, His people were still responsible for choosing faithfulness each day. Entering the land did not eliminate personal responsibility.

Sod: The two mountains represent two spiritual elevations. One reflects communion with YHWH through obedience, while the other reveals the barrenness that follows separation from Him. The soul continually ascends one mountain or the other.

Energetic Flow

YHWH brings Yisrael into the land → Covenant publicly renewed → Blessing and curse declared → The people choose their path → Covenant destiny unfolds.

Meaning

The covenant was never intended to remain merely private. By proclaiming the blessings and curses publicly, Yisrael acknowledged that obedience to YHWH affects the entire community. Our choices always influence those around us.

PaRDeS

페샤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그리심 산에서는 언약의 복을, 에발 산에서는 언약의 저주를 선포해야 했다. 이 의식은 온 백성 앞에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다(여호수아 8:30–35).

레메즈: 서로 마주한 두 산은 모든 세대가 항상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순종과 반역 사이에 서 있음을 상징한다.

드라쉬: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모두 같은 언약의 땅 안에 있었다. 엘로힘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백성은 날마다 신실함을 선택해야 했다. 땅에 들어가는 것이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다.

소드: 두 산은 두 가지 영적 높이를 나타낸다. 하나는 순종을 통한 야훼와의 교제를, 다른 하나는 그분에게서 떠날 때 찾아오는 메마름을 보여 준다. 영혼은 끊임없이 이 둘 중 하나를 오르게 된다.

에너지의 흐름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땅으로 인도하심 → 언약이 공개적으로 새로워짐 → 복과 저주가 선포됨 → 백성이 길을 선택함 → 언약의 미래가 펼쳐짐.

의미

언약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복과 저주를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야훼께 대한 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Mussar

Live your faith openly and consistently. Let your daily choices encourage others to pursue YHWH's ways. Your obedience can become a public testimony that points others toward blessing.

무사르

믿음을 공개적이고 일관되게 살아가라. 당신의 매일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도 야훼의 길을 따르도록 격려하게 하라. 당신의 순종은 다른 이들을 복으로 이끄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Verse 30

“Are they not beyond the Jordan, toward the setting sun, in the land of the Kena'anites who dwell in the desert plain opposite Gilgal, beside the terebinths of Moreh?”

“이 두 산은 요단 강 건너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레 상수리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PaRDeS

Peshat: Moshe precisely identifies the location of Mount Gerizim and Mount Ebal. The covenant ceremony would take place at a real place in the land that Yisrael was about to inherit.

PaRDeS

페샤트: 모세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준다. 언약 의식은 이스라엘이 곧 차지할 실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Remez: Mentioning specific landmarks reminds Yisrael that YHWH's covenant is rooted in history and geography. Faith is lived in real places through everyday obedience.

레메즈: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것은 야훼의 언약이 역사와 지리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믿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Drash: The terebinths of Moreh recall Abraham's arrival in Canaan (Gen. 12:6–7), where YHWH first promised the land. Yisrael now stands ready to inherit what was promised generations earlier.

드라쉬: 모레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여 야훼의 약속을 받은 장소를 떠올리게 한다(창 12:6–7). 이스라엘은 여러 세대 전에 주어진 약속을 이제 이어받게 된다.

Sod: The covenant links sacred memory with sacred space. Every generation is invited to stand where the patriarchs stood, renewing the same relationship with YHWH.

소드: 언약은 거룩한 기억과 거룩한 장소를 연결한다. 모든 세대는 족장들이 섰던 자리에 다시 서서 동일한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는다.

Energetic Flow

Promise given to Abraham → Yisrael enters the land → Covenant renewed at a historic place → Present

에너지의 흐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 →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감 → 역사적인 장소에서 언약을 새롭게 함 →

Energetic Flow

obedience fulfills ancient promises → Future generations remember YHWH's faithfulness.

Meaning

Elohim often anchors spiritual truths in physical places and historical events. Remembering where YHWH has worked strengthens faith for present obedience and future hope. His promises are not abstract—they unfold within history.

Mussar

Remember the places where YHWH has been faithful in your life. Recalling His past guidance strengthens courage to obey Him in the present and trust Him for the future.

에너지의 흐름

현재의 순종이 옛 약속을 이루어 감 → 다음 세대가 야훼의 신실하심을 기억함.

의미

엘로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실제 장소와 역사적 사건 속에 새겨 두신다. 야훼께서 일하신 곳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순종과 미래의 소망을 굳게 한다. 그분의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무사르

야훼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신실하셨던 장소와 순간들을 기억하라. 과거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현재의 순종을 위한 용기가 생기고 미래를 향한 신뢰가 깊어진다

Verse 31

“For you are passing over the Jordan to go in to possess the land which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And you shall possess it and dwell in it.”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엘로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PaRDeS

Peshat: Yisrael is about to cross the Jordan and receive the land that YHWH promised to their fathers. They are not merely to enter it but to possess it and establish their lives there.

Remez: Crossing the Jordan symbolizes leaving behind the wilderness life and entering a life of covenant responsibility and maturity.

Drash: YHWH gives the land, yet Yisrael must possess it. Divine promises invite human participation. Faith receives Elohim's gift while obedience walks into it.

PaRDeS

페샤트: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단지 들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 정착해야 한다.

레메즈: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광야의 삶을 뒤로하고 언약의 책임과 성숙의 삶으로 들어감을 상징한다.

드라쉬: 야훼께서 땅을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 엘로힘의 약속은 인간의 참여를

PaRDeS

Sod: The Jordan represents the boundary between preparation and fulfillment. The soul must leave the old wilderness behind to fully enter the inheritance prepared by YHWH.

Energetic Flow

YHWH gives the promise → Yisrael crosses the Jordan → The land is possessed → The people dwell securely → Covenant life flourishes.

Meaning

Elohim's promises are intended to be lived, not merely admired. Yisrael was called to step forward in faith and take hold of what YHWH had already prepared. Likewise, spiritual growth requires both trust in His promises and faithful action.

Mussar

Do not remain on the edge of Elohim's promises. Take the next faithful step He has placed before you. Courageous obedience often becomes the bridge between promise and fulfillment.

PaRDeS

요구한다. 믿음은 엘로힘의 선물을 받고, 순종은 그 선물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소드: 요단강은 준비의 삶과 성취의 삶을 나누는 경계이다. 영혼은 광야의 옛 삶을 뒤로해야만 야훼께서 준비하신 기업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에너지의 흐름

야훼께서 약속하심 →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 땅을 차지함 → 백성이 안전하게 거함 → 언약의 삶이 번성함.

의미

엘로힘의 약속은 단지 바라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영적 성장은 엘로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실한 행동을 함께 요구한다.

무사르

엘로힘의 약속의 문턱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분께서 앞에 두신 다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라. 담대한 순종은 약속과 성취를 이어 주는 다리가 된다.

Verse 32

“And you shall guard to do all the laws and the right-rulings which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PaRDeS

Peshat: Moshe concludes this section by commanding Yisrael to carefully observe all of YHWH's statutes and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PaRDeS

페샤트: 모세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에게 야훼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PaRDeS

judgments. Possessing the land depends upon continuing covenant faithfulness.

Remez: The expression "**guard to do**" (**שָׁמַר לַעֲשׂוֹת**)

teaches that obedience begins by carefully watching over one's heart before it appears in outward actions.

Drash: The covenant is sustained not through occasional acts of devotion but through consistent faithfulness in every aspect of life. Every command contributes to Yisrael's holiness as a covenant people.

Sod: Every commandment becomes a vessel through which divine holiness enters daily life. Faithful obedience transforms ordinary moments into places where YHWH's presence dwells.

Energetic Flow

YHWH gives His instruction → Yisrael guards His word → Obedience shapes daily life → Holiness grows → Covenant blessings continue.

Meaning

This verse summarizes the heart of Deuteronomy. The covenant is not maintained by emotion alone but by faithfully living according to YHWH's instruction each day. Obedience is the practical expression of love for the One who first loved His people.

Mussar

Make faithfulness your daily habit rather than an occasional event. Small acts of obedience, repeated consistently, shape a life that reflects YHWH's character and brings lasting blessing.

PaRDeS

신중히 지켜 행하라고 명한다. 땅에서의 삶은 지속적인 언약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레메즈: *****“지켜 행하라”(שָׁמַר לַעֲשׂוֹת)*****는

표현은 순종이 행동 이전에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됨을 가르친다.

드라쉬: 언약은 가끔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되는 신실함으로 유지된다. 모든 계명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 간다.

소드: 모든 계명은 엘로힘의 거룩함이 일상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릇이 된다. 신실한 순종은 평범한 일상을 야훼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로 변화시킨다.

에너지의 흐름

야훼께서 가르침을 주심 →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킴 → 순종이 일상을 빚어 감 → 거룩함이 자라남 → 언약의 복이 계속됨.

의미

이 구절은 신명기의 핵심을 요약한다. 언약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가르침을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유지된다. 순종은 먼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분께 드리는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무사르

신실함을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삼으라. 작지만 꾸준한 순종은 야훼의

Mussar

무사르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만들고 오래 지속되는
복을 가져온다.